# 傘下支部動靜

## ◎協會本部

86제3차 理事會 긴급 개최

※賃貸保證金 대폭 引上에 따른 對策協議

協會는 임대보증금 대폭 引上에 따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時限付의 대폭적인 現實化 인상이라 協會는 부득이 지난 10月17日에 可用한 긴급 理事會를 소집하고 이 의해결방안을 숙의한 바 있다。

이날 理事會는 긴급 通으로 소집한데 불구하고 참석 10명, 위임 7명으로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당면문제 해결책을 論議한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早期 매듭 짓기로 하였다。

▲결의사항：現 共販場 경영책임자가 事務室 및 공판장에 대한 引上된 임대보증금을 全額 부담하면서 慣例대로 재계약을 實施한다는 案을 부의 論議 끝에 공판장 경영 당사자가 약간의 時間여유를 갖는 전제하에 별이의없이 同意하므로서 이 案이 合意 채택되었음。

## ◎各市·道支部 綠生會

各 直轄市 및 道支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綠生會 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地域別 生藥分野 호 情報交流에 活用하시기 바랍니다。 各 支部長께서는 회의결과 本部에 건의할 事項이나 여타지역에전파 요망하는 事項등을 本部에 제출하여 주신다면 生藥報 또는 公文으로 널리 弘報해 드리겠읍니다。

· 江原道支部：매월 14일

· 忠北道支部：3개월째 月末

· 慶北道支部：3개월째 月末

· 全北道支部：2개월째 20日

· 慶南道支部：매월 3日

· 釜山직할시支部：매월 10日

· 忠南道支部：2개월째 月別로 定함

· 全南道支部：制限日없음

· 京畿道支部：制限日없음

· 濟州道支部：制限日없음

## ◎生藥報 원고資料 要望

協會는 機關紙 내용을補完하고 산하 支部및 分事務所의 活動事項을 널리전파 弘報하므로써 얻어지는 장기적인 效果를 고려 음과 같이 生藥報게재 고를 수집하오니 많은 活 用과 協助있으시기를 當付 합니다。

①生藥分野의 시책건의 事項

②生藥栽培 체험담

③自然生藥中 재배해볼 만한 品種및 재배요령

④自然生 채취및 保續 生産要領

⑤自然生 藥草의 발굴및 保存현황

⑥地域相互間 交流를 要望하는 生藥材 재고현황

⑦기타 生藥分野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資料

# 불에 타지 않는 나무 국내첫선

## 東洋木材 高壓으로 藥品처리 年1만㎥ 생산

불에 타지않는 목재가 東洋精密그룹 계열회사인 東洋木材(대표 李炳九)에 의해 국산화됐다。

일반목재에다 높은 압력을 가하면서 목재중심부까지 특수약품을 침투시켜 불에 타지않도록 했기때문에 加壓식 難燃목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전량수입, 사용해왔었다。

21일 東洋木材에 따르면 가압식 난연처리목재는 목재생산라인에 가압식 난연 注藥管을 설치 특수처리한 화재확대방지약품인 버백스를 압력을이용해 목재내부까지 침투시켜 내화성을 유지시킨 목재인 것이다。

이목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표면에 난연페인트를 칠해 일시적인 난연효과를 나타낸 기존목재보다도 내화성유지가 영구적이며 목재의 최대결점인 연소성을 영구히 방지할 수 있게됐다。

東洋木材는 가압식 난연처리목재를 개발하기위해 지난 80년초부터 연구개발에 착수,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인데 지금까지부 분적으로 수입되던 가압식 난연처리목재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수 있게됐다。

東洋은 이와관련 생산공장에 注藥管을 설치 연간 1만㎥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東洋이 개발한목재는 불에 타지않게 약품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본래의 색상과 무늬의 아름다움이 그대로유지되는게 특징이다。

한편 東洋이 개발한 목재는 산림청과 임업 시험장등에서 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인정됐으며 소방당국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목재사용을 권장하고있다。

# 自然生 入山採取制度 活用에 觀心을…

自然生藥材의 현저한 감소추세는 우리 한방藥界에 相當한 아쉬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이 繼續된다면 귀중한 外貨를 낭비해가면서까지 外産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를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2~3년 前만해도 本會에 加入된 採取會員이 平均 4~5백名線을 상회하고 自然生 出荷도 꾸준히 수준량 정도는 유지되어왔으나 近年들어 채취會員의 신규加入은 거의 없고 기존회원의 入山회원증 갱신 發給수도 헤아릴 정도로 감소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①農村생활 수준의 向上으로 어려운 入山채취등 노동행위를 기피하는 경향

②농촌인력의 부족 영향

③자연보호등의 강한제약조건에 저촉

④합법적인 입산절차에 대한 인식부족

⑤지역지도자의 홍보활동 부족

⑥관련 리·동산림계장의 협조부족등을 들수있다。

따라서 協會는 우리나라와 같은 自然여건이 좋은 山野의 副存資源을 合法으로 최대한 活用해보자는의도에서 다음에 入山採取會員制度를 다시한번 例示한다고 하며, 해당지역 分事務所長은 관할리·동山林係長과 밀접한 관계유지하에 自然生藥채취 및 출하에 한층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入山採取會員證 發給節次

1、협회본소장이 그지역 채취희망자를 모집하여 리·동 산림계장과 협조 入山채취적격자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2、山林係長으로 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入山時 준수사항(22개항목)을 철저히 사전교육할것。

3、교육을 실시한 後 里·洞山林係長 추천서를 첨부하여 協會本部에 會員證 발급을 申請할것。(分사무소장이 종합하여신청)

4、會員證을 발급받은 者에 한하여 관할지역 경찰서에 其명단을 1부제출할것。(入山時 안보대책)

※生藥協會 入山채취 제도의 인식을 돕기 爲하여 最近 水原의 林業硏修院에서 實施하고 있는 里·洞山林係長교육계획에 協會本部에서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 農機械 90년까지 완전國産化

## 업계, 내년부터 7백억투자 부품자급

農機械업계는 내년부터 오는 90년까지 7백억원을 투자해 현재 品目別로 최저 50%에서 최고 90%에 머물고 있는 농기계 국산화율을 1백%로 끌어올릴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콤바인 같은 풀로은 9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으나 트랙터는 50%에 그치고 있어 對日本부품의존도가 높아 原價압박을 가져와 오는 90년까지 주요부품의 완전자급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농기계업계는 업체별로 매년 50억~1백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국산화율을 확대해 나가고 품질수준을 높여 수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특히 수출용 소·대형트랙터는 현재 50%에서오는 88년까지는 90%, 90년까지는 1백%로 높일계획이며 내수용 대형트랙터는 현재 70%에서 내년에 90%, 88년에 1백%로 높이고 콤바인은 올해 95%에서 내년까지 1백%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자투고〉

# 뱀딸기

권순채

논둑, 밭둑, 길섶 등지에 잘자라며 빨갛게 익어있는 뱀딸기를 이 지방에서는 개미딸기라 부르며어린아이들이 즐겨 먹기도하는데 어른들은 먹기를 꺼린다는 것같다。 먹기를 꺼릴 것이 아니라 먹으며는 좋은 약이되는 만큼 소개하고자 한는 것입니다。

뱀딸기는 겨울을 지내는 여러해살이 풀로서 땅위로 줄기를 뻗고 줄기의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란다。

잎은 서로 어긋나 있으며 마디로부터 긴 잎자루가 나와 그 끝에 잎이 셋이 붙어 있는데 포기 전체에 퍼져 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때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길게 뻗어 나간다。 잎은 도란상 타원형이거나 도란형 내지는 난형이다。

잎 뒷면의 잎줄기위에는 털이 나있으며 끝은 뭉툭하고 기부는 쐐기형으로 되어있다。 꽃받침과 꽃잎은 도란형으로 약간 옥록하게 들어가 있으며, 수술은 많으나 화사(花糸)는 보이지 않는다。 열매는 딸기모양과 같이 붉은색으로 익으며 수과처럼 많이 있다。

열매는 어린아이들이 즐겨 먹지만 식용 가치가있다고는 볼수 없으나 약용으로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고혈압의 묘약(妙藥)으로 옛날에는 산간지방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 온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양기를 돕고 위를 강하게하며 여성의 불임증에도 좋다고 한다。

눈을 밝게하고 흰머리를 검게하는 약효도 있다고하는 말씀 뱀딸기를 독초(毒草)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약초로 여기고 가정에서도 재배해볼만한 풀종이라고 생각된다。 꽃밭이나 화분에 심어 두면 노란꽃과 빨간열매는 정말로 보기좋은 하나의 관상용 약초가 될것이다。

뱀딸기는 장미과로 다년생 숙근초로서 원산지는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이 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나 부식질이 많은 점질양토에서 잘 자라며, 햇볕이 잘드는 양지에서 자라며 노지에서 숙근성으로 월동하게된다。 번식은 실생 또는 줄기를 심으면 된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1리 886〉

# 白然生採取(연재)

## 은방울꽃

○과 명=백합과

○속 명=초롱꽃, 영란

○약용부=꽃, 줄기, 뿌리등 전초

1、기본=우리나라북부 한냉지방 높은 산에서 잘 자라는 자연생 다년성 식물이다。

2、생장적지=한냉한 식물 기후를 좋아하는 서북향의 반음지로서 약간 습기를 띤 점토질이 최적지이다。

3、특징=가늘고 긴 지하경은 옆으로 뻗으며 가는 털뿌리가 나 있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2~3매 뿌리밑에서부터 나와 있다。 5월경 20㎝ 정도의줄기가 나와서 그 끝에 희고 귀여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다。 열매는 빨갛게 익는다。

4、채종=종자는 씨앗으로 하지않고 야생의 포기를 캐다 분주하여 야생에 서 자라는 자연 식물이다。

5、파종=5~10월사이에 야생의 묘를 포기채로 캐다가 뿌리에 많이 붙어 있는 싹을 이식한다。

6、채취=5~6월경 꽃이 한창 필 무렵에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포기채 뿌리를 캐낸다。

7、조제=포기채 수확한 것을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뿌리를 씻어서 포기전체를 그늘에 말리어야 한다。

8、이용=포기전체가 약용부위이라 약효는 강심제로 사용한다。

## 음양곽(淫羊藿)

○과 명=매자나무과

○속 명=삼지구엽초

○약용부=줄기, 잎, 뿌리등 전초

1、기본=우리나라각지에 자생하는 다년생 풀로서 옛부터 강정제로 널리 쓰여왔다。

2、생장적지=산림속 그늘이 지는 곳이나 잡목 밑이 적지이다。

3、특징=잎의 저부에는 심장형을 한 세잎이 나와있기 때문에 삼지구엽초이라고 한다。 낮은 산 그늘 꽃 모양은 낮모양으로 하고 있고 색깔은 백색 자색 황색 등을 나타내고 있다。 꽃피는 4~5월경이다。

4、채종=야생한 묘로부터 분주한다。

5、파종=포기 나누기 방법으로 번식한다 시기는 4~5월이 좋다。

6、채취=수확은 꽃이 필 무렵에 풀 전체를 뿌리밑동에서부터 베어서 채취한다。

7、조제=베어 채집한 풀 전체를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서 제품으로 한다。

8、식용=소화를 돕고 식욕을 한진시키는 제품으로 음위, 신경쇠약, 전신무력, 히스테리, 해외수출품 등에 효능이 있다。

〈2면에서 계속〉

최근에 학생운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세번째 격정은 점차 신념화되어가는 듯한 폭력투쟁 노선이다。 예를들어 이목을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폭력투쟁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폭력의 전술적사용이다。 그러나 투쟁방법으로 폭력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명백히 폭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학생 데모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수단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은 학생운동이 폭력투쟁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준다。

폭력투쟁노선은 일시적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할 수는 있으나운동의 대의를 오히려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부 사회세력의 폭력투쟁으로는 투쟁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우사회라고 본다。 그것은그 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일부 세력의 폭력사용을 한없이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명백히 폭력투쟁의 수단을 택하고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투쟁이 비폭력 평화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비폭력 투쟁은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는 투쟁방식이다。 상대방이 폭력을 쓴다는 구실로이 폭력에서도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그것은 비폭력 투쟁이 아니다。 비폭력 투쟁의 세계적창도자는 세상에 잘 알려진 바대로 인도의간디였다。 그는 영국을상대로 독립운동을 지도하면서 영국이 아무리 무력탄압을 가해 와도 결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한동안 공산당과 사회당의 주요 노선대립의 하나는 폭력의 사용문제였다。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공산당 노선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의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회당 노선이었다。 학생운동이 비폭력 평화적 투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생운동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우선 맑은 눈을 갖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유신시대 때 많은사람들은 박정희대통령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그후의사태발전은 그렇질 못했다。 그렇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으나 가장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사회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길은 능할 것이다。 하나는과격하고 급진적인 투쟁을 통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길이고, 또하나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순리에 맞춰 현실개선을 꾀하는 길이다。 전자는 혁명의 길이라고 할수 있다。 개혁의 길은 현실타협적이고 지루하며 앞이 불투명한 길인반면 혁명의 길은 열정적이며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일는지모른다。 이같은선택의 기로에서 유혹의 손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개혁의 길이 오히려 혁명의 길보다 확실한 진전을 가져다 주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스페인이 그같은 경우다。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1인 장기집권을 경험했으나 프랑코가죽은 뒤 적대적인 정치세력들이 서로 성급한 정치적 결을 피하기 위해 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은 미묘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사원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은 대개 남이 씌워준 안경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현실그대로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모든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선 맑은 눈을갖는 것이 선결문제일것이다。

〈박범진=서울신문 논설위원〉